

SK팜 나비효과? 공모주 “앗 뜨거워”... 수천대 1 경쟁률

예비상장사 78%, 최상단이상 공모가 제눌루션, 공모가보다 150.71% 올라 상장 앞둔 기업들, 몸값 책정 고심

공모주 청약이 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달 공모가를 확정해 상장을 마무리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공모가 대비 평균 주가상승률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새내기주에 향하고 있는 이유다.

높은 수익률과 투자 수요가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금융투자회사와 상장을 앞둔 기업이 공모주에 쏠린 투자심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 공모주 전성시대...예비 상장사 기대 고조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마친 예비 상장사(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 14곳 중 78%인 11곳이 희망가격 범위(밴드) 최상단 이상의 금액을 공모가로 확정했다. 가격을 제시한 건수 대부분이 밴드

〈최근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마친 예비 상장사 10곳(2일 기준)〉

기업명	확정공모가	희망공모가	현 주가	청약 경쟁률
솔트룩스	2만5000	2만4000~3만	2만8950	953.53:1
제눌루션	1만4000	1만2000~1만4000	3만5100	894.67:1
더네이처홀딩스	4만6000	4만5000~5만	4만3800	151.9:1
엠투아이	1만5600	1만5600~1만8900	1만5750	176.83:1
와이팜	1만1000	9700~1만1000	1만8800	712.13:1
이앤디	1만4400	1만2350~1만4400	2만	808.62:1
제이알글로벌리츠	5000	5000	상장예정	0.23:1
이루다	9000	7500~9000	상장예정	3039.55:1
한국파마	9000	6500~8500	상장예정	2036:1
영림원소프트랩	1만1500	9500~1만1500	상장예정	진행예정

/단위: 원

상단 이상에 몰리며 최종 공모가가 밴드를 넘어선 기업만 2곳(한국파마·티에스아이)이다.

14곳 중 현재 상장을 마친 곳은 총 9곳. 이 가운데 이시스밸류리츠와 더네이처홀딩스를 제외한 7곳이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넘어섰다. 9곳의 평균 상승률은 43.98%에 달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기업인 제눌루션의 경우 전 거래일 코스닥 시장에서 공모가(1만4000원)보다 150.71% 오

른 3만5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눌루션은 일반인 대상 청약에서 8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제눌루션의 뒤를 이어 공모가 대비 87.03% 상승한 에이프로 역시 일반투자자 수요예측에서 1582대 1을 기록한 경쟁률이 흥행의 예고편이었음을 증명했다.

공모주를 향한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한 주간 역대 1·2위 일 반투자자 청약 경쟁률이 모두 썰졌다.

의료기기 업체 이루다가 지난달 28일 3039대 1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더니 전문의약품 제조기업 한국파마가 이를 만에 2035대 1로 뒤를 이었다. 두 기업 모두 이전까지 최고 기록이었던 2018년 5월 현대사료(1690대1)와 이달 초 진행된 2차전지 시스템 기업 티에스아이(1621대 1)를 크게 웃돈다.

시장에선 SK바이오팜의 흥행이 불러온 나비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소중 SK증권 연구원은 “공모 시장 유동성 장세가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SK바이오팜 청약증거금 31조원 중 환불된 30조원 일부가 공모 청약 투자로 다시 유입됐고, 기업들도 하반기 상장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공모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기업설명회(IR) 컨설팅업체 관계자도 “지금도 상장 최고의 적기”라고 평가하며 “SK바이오팜을 통해 청약 방식에 요령이 생긴 데다 공모주 수익률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 선택과 집중, 공모가 ‘바겐세일’ 전략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은 몸값 책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부 새

내기주의 선전 이유로 동종기업의 주가 수익비율(PE)보다 낮은 공모 밴드가 지목되면서다. 가격 경쟁력이 청약 흥행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결국 기업가치에 대한 높은 평가를 포기한 기업도 생겨났다. 저가 매력을 부각해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다.

최근 IPO를 끝낸 예비 상장사 대표는 “대표주관사 측에서 계속 공모가를 저렴하게 책정하자고 설득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처음엔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상장 이후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해 고민 끝에 거기에 따르기로 했다”며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대신 청약에서 ‘대박 경쟁률’을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평가를 이용해 수익률을 얻으려는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모가를 낮게 책정해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쪽이 상장 이후 주가 흐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이다. 공모시장 경쟁률이 기업의 추후 성장 가능성의 대안 지표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대형 건설사 실적 ‘뚝’... 코로나 직격탄

(2분기)

삼성물산, 복귀했지만 영업이익 ↓
현대건설, 매출·영업이익 감소
대림산업,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대형 5개 건설사의 2분기 실적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2019년 기준) 상위 건설사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은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2분기 실적은 매출 2조8420억원, 영업이익 1480억원으로 1분기 매출(2조6420억원)과 영업이익(1240억원)보다 올랐다. 삼성물산은 상반기 반포 3주중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는 등 5년 만에 정비사업에 명함을 내밀며 화려한 복귀를 알렸지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8%, 영업이익은 6.3% 줄어들어 코로나19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매출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형 프로젝트 지연으로 줄었다”며 “다만 영업이익은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 노력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권을 따내며

올해 정비사업 수주 1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건설은 2분기 실적(연결 기준)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4조5442억원, 영업이익 1539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9%, 37.2% 감소했다. 반면 매출은 전기 대비 12% 증가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고한 국내 주택 실적과 현대오일뱅크 정유공장 개설행사로 등으로 상반기 매출이 늘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회계처리를 보수적으로 하면서 영업이익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1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매출은 2조5477억원으로 3.2% 증가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건설사업부의 호실적 지속과 자회사인 카리플렉스와 고려개발의 신규 연결 편입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6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8% 감소했다. 매출은 2조54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3.5% 떨어졌지만 매출은 4.3% 늘었다.

GS건설은 “향후에도 안정적인 이익기조를 앞세워 양적 성장보다는 수익성에 기반한 선별 수주와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2분기 연결기준 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매출액 1조9632억원, 영업이익 812억원, 순이익 5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2% 줄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20%, 13% 감소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상반기에 대내외적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했지만 하반기에는 주택건축부문 사업이 본격화되고 해외 사업장도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실적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코스피 강세에 주식형펀드 2.97% 상승

주간펀드동향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주식형 펀드가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2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주간(7월 24일~7월 30일) 국내 주식형펀드는 2.97%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삼성전자 등 대형주가 크게 상승하면서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3.22% 수익을 올렸다.

설정액은 지난해에 이어 4833억원이 유출됐다. 액티브펀드에서 1535억원 감소했고,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는 3298억원 줄었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한 주간 1.17% 하락했다. 브라질(-6.01%), 일본(-

1.63%), 중국(-1.41%) 등이 하락했다. 섹터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금값이 계속 오르면서 소재섹터가 유일하게 2.93% 올랐다.

설정액은 498억원 소폭 늘었다. 중국펀드로 355억원의 자금이 들어왔고, 에너지, 소재, 금융, 소비재 등 대부분의 섹터펀드에도 자금이 유입됐다.

해당 기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국내 주식형펀드는 코스피 지수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종류C-e’(7.22%)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에서는 동남아 지역에 투자하는 ‘삼성아세안증권투자신탁 2[주식](C 3)’(6.16%)가 수위를 기록했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

LH, 산업공학회와 스마트시티 활성화 협약

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정보 교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대한산업공학회와 협력체계 구축 및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스마트시티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시티 구축을 맡고 있는 LH와 융·복합 기술 전문연구기관인 대한산업공학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스마트시티 인프라·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정보 교류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육성을



지난달 3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왼쪽)과 문일경 대한산업공학회 회장이 협약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H

위한 연구개발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한 산학협력 기반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연우 기자